

19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025. 8. 21.(목) 10:30~12:00
- 참석자(총 7명)
 - 사회자: 이해경 원장
 - 국외 참석자(1) : Silvia Perel-Levin (Independent consultant on ageing, health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Vice-Chair, NGO Committee on Ageing, Geneva. Editor of 「Ageing of the Oppressed - A pandemic of intersecting injustice」)
 - 국내 참석자(4):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영란 이사, 조현세 이사, 박유경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센터 참석자(1): 고근 사무국장

□ 주요발표내용

- 제네바 노령화 NGO 위원회(NGO Committee on Ageing in Geneva) 및 국제장수센터 글로벌 연합(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Global Alliance, ILC-GA), 국제장수센터 이스라엘(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Israel) 주요 활동 소개
- Participation and Voice: Ensuring Older Persons' Agency in Policy Making(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령자의 참여권과 주체성)
 - 실비아는 제네바 NGO 노인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부의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노인학대예방네트워크(INPEA)와 국제고령화센터 글로벌 얼라이언스(ILC GA)의 유엔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WHO, 국제암통제연합(UICC), 독립 컨설턴트로 20년 이상 노인인권, 건강, 노화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전에는 TV·영화·연극 프로듀서로서 예술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 실비아는 자신의 경력과 노인인권 분야와의 오랜 연관성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INPEA 대표로 활동하며 폭력과 건강의 교차 영역을 연구했고, 노인학대에 관한 석사논문은 WHO에서 출판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연구에서 옹호활동으로 전환했으며, 노인학대가 단순한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연구에서 옹호로: WHO 재직 시, 실비아는 INPEA와 함께 10개국에서 실시된 최초의 다국가 노인학대 연구를 총괄했다. 연구 결과, 학자와 1차 의료인은 학대를 신체적·

심리적·재정적·성적 폭력 및 방임으로 정의했지만, 노인 당사자들은 이를 권리 침해와 선택권 박탈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통찰은 노인학대를 자율성과 존엄성의 문제로 재정의하게 했다. 이 결과는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과 토론토 노인학대 예방 선언에서 발표되었다.

- **국제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참여:** 실비아는 17개국 센터가 연구·옹호·교육을 수행하는 국제고령화센터 글로벌 얼라이언스(ILC GA)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네바 NGO 노인위원회, 노인인권글로벌연합(GAROP) 운영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네바에서는 NGO가 결의안의 비공식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및 국가 활동:** 이스라엘에서는 ILC 이스라엘 및 WHO와 함께 인권·건강·도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가회의를 준비했다. 또한 10월 7일 공격 이후 이주를 겪은 노인들의 경험을 기록한 PhotoVoice 전시 등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옥스퍼드대와 협력해 인공지능이 돌봄에 미치는 윤리적·인권적 영향을 연구하기도 한다. 나아가 인권 관점을 고령친화 도시와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Legal Protection Gaps for Older Persons: The Case for a UN Convention(노인 인권 보호의 법적 공백과 유엔협약의 필요성)

- **국제 인권 체계의 공백:** 실비아는 현재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기구는 종종 노인을 배제하며, 일부 국가는 공개적으로 “노인을 언급할 공간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성폭력에 관한 전 세계 통계에서 50세 이상 여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 **정치적 과정과 협약 옹호:** 실비아는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뉴욕의 노인작업반(OEWGA)은 10년 넘게 교착 상태였으나, 제네바 HRC에서는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3년 이후 인권이사회는 노인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고, 2021년에는 연령주의에 관한 첫 실질적 결의를 통과시켰다. OEWGA 13~14차 회기 사이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불러 규범적 공백 여부를 논의했으며, 독일은 여전히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많은 국가는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주요 지지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슬로베니아, 감비아, 필리핀이며, 80개국 이상이 지지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적

이유로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 **향후 전망 - 일정과 우선순위:** 실비아는 합의 형성에 최소 5년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정은 노인학대 금지와 같은 광범위한 합의 주제에서 시작해, 성별이나 법적 능력 등 더 논쟁적인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3차 세계고령화총회는 2032년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것이며, 이상적으로는 새로운 협약이 채택된 이후 개최되길 기대했다.
- **결론:** 실비아는 노인인권 관련 UN 협약이 규범적 공백을 메우고, 국가에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법에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고 기존 조약을 강화하며, 노인의 가시성을 전 세계 의제에서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인권은 국가의 의무이지 자비가 아니며,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연대를 구축하며 노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별첨. 발표자 Silvia Perel-Levin 약력 1부. 끝.

[별첨]

19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발표자
Silvia Perel-Levin 약력



□ 실비아 페렐-레빈(Silvia Perel-Levin)

- 노인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이자 독립 컨설턴트임. 인권, 고령화, 건강 분야에서 25년간 활동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 중임. 제네바와 텔아비브를 오가며 OEWGA(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및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으로 참여함
- 주요 활동 및 소속 단체
 - 제네바 노령화 NGO 위원회(NGO Committee on Ageing in Geneva): 노인인권 하위 위원회를 8년간 이끌었으며, 2022년까지 의장 역임. 현재는 부의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음. 세계노인권리연합(GAROP)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임
 - 국제장수센터 글로벌 연합(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Global Alliance, ILC GA):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ILC GA를 대표하며, 노인의 권리와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제장수센터 이스라엘(ILC Israel) 회장으로도 활동 중임

- 국제노인학대예방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 대표로 활동하며, 노인 학대 예방 및 유엔의 노인 권리 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Ageing of the Oppressed: A Pandemic of Intersecting Injustice』 (억압받는 이들의 노화: 교차하는 불평등의 팬데믹, 2023년 발간) editor를 맡았으며, 2023년 일본 아이치에서 열린 독립 고령화 회의 공동 조직함
- 개인 컨설턴트 및 인권 옹호자: 23년 이상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건강, 인권, 노화 관련 문제를 다뤘음. 과거에는 TV, 영화, 연극 제작자로서 예술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음

